

[종합·해설]

외교안보팀 내달 초 개편... 후임 누가 거론되나

외교부 장관에 송민순 실장 1순위

통일 이봉조·김하중 거명
국방 김중환·안광찬 물망
국정원장엔 윤광웅 유력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대폭 교체된다. 유엔 사무총장 부임을 위해 내달 15일 출국하는 반기문 외교부장관에 이어 윤광웅 국방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까지 사퇴의사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교체 대상에 올려놓고 그 시기를 자율중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관급인 안보실장을 포함해 통일, 외교, 국방 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을 형성하는 5대 핵심 포스트가 한꺼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것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차기 외교부장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는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관점에서 북핵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외교부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 지배적 기류이다.

송 실장이 유임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유력

한 1차관이 유력한 상태다.

당초 유임설이 유력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외교안보라인 인사 구도가 복잡해졌다. 현재 이 장관 후임으로는 통일부 출신의 이봉조 전 차관과 김하중 주중 대사 등 관료 출신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로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참여 정부 출범 후 첫 문민 장관 탄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국방장관 후임은 군 출신으로 김종환 전 합참의장과 안광찬 비상기획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동시에 참여정부 출범 후 육군과 해군 순으로 국방장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배양일 전 공군참모차장도 부상하고 있다.

문민장관의 기용 여부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장영달 의원 등이 후보로 검토될 수 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교체된다면 윤 국방장관이 자리를 옮겨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사태로 인해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고, 윤 장관이 참여정부 국방보좌관을 지내며 노 대통령의 철학에 정통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원 내부 승진 첫 원장 배출이라는 차원에서 NSC 정보관리실장을 지낸 김만복 국정원 1차관의 내부 승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리를 앉고 있다. /연합뉴스

'DJ 목포서 무슨말 할까' 촉각

28일 방문... 역광장서 연설 예정
호남 민심·정계개편 영향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은 정계개편 및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인파가 목포역 광장에 운집하는 등 군중집회 성격을 띠 가능성이 커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호남 민심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5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KTX 편으로 목포역에 도착하면 박준영 전남지사, 한화갑 민주당 대표, 유선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동동의 꽃다발 증정을 시작으로 목포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고향의 봄 연주

가 펼쳐지는 환영 행사를 갖는다.

이날 저녁 김 전 대통령은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도내 22개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단, 전남도의원,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도도 친인척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갖는다.

방문 이틀째인 29일 김 전 대통령은 전남도청에 기념식수를 하고 유달산, 대반동, 선창 일대 등 자신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던 과정에서 흔적이 남아있는 목포 일대를 둘러본 뒤 상경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목포 방문에서 던질 메시지를 내용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5천 명 이상이 운집할 목포역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것은 물론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민심'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을 놓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은 '민주당의 손을 간접적으로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아집을 버리고 민주세력 대통합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동교동은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은 단순한 고향 나들이 성격이며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번 목포 방문은 퇴임 이후 고향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부에서 이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sykim@kwangju.co.kr

'통합파' 광주·전남 여의의원 회동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계개편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세력 통합파'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지역 여의 의원들이 회동을 가져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계개편 등과 관련 이 같은 광주·전남지역 여

야 의원들의 모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정일(광주 동구),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 의원(광양·구례)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은 25일 만찬 회동을 갖고 추후 정계개편 등과 관련, 서로의 공

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호남 정치 진로에 대해 상호 간에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정일 의원은 "오늘 모임은 친목적인 성격이 깔려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추후 정계개편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여·야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 간의 내부 움직임은 시

간이 갈수록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 회동에 모인 사람들이 양 당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의미는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추후 정계개편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움직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이명박 "한반도 대운하 4년내 완공"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대선후보 제1공약으로 준비 중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 "기술적 검토가 끝났으며 시작 후 4년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뉘렌베르크 소재 라인-마인-도나우(RMD)운하 힐플트스타인 갑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시장이 구상 중인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거칭 '경부운하'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각각 건설해 남쪽 지역의 물줄기를 하나로 연결한 뒤 이를 장기적으로 북한의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대역사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5일 독일의 뉘렌베르크 RMD 운하를 방문,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시장은 총연장 200km의 호남운하는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로 연결되며 경부운하처럼 별도의 터널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lawyers and their specialties. Includes text like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law firms.

Advertisement for '분묘개장공고(2차)' (Gravestone relocation notice) with details about the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wangto Selchimdae.

Advertisement for '건물매매' (Building sale) listing features like '345평 167평', '지하층 자성3층 건물', and contact info for Hwangto Selchimdae.

Advertisement for '건물임대' (Building rental) listing features like '1층 225평', '2층 225평', and contact info for Hwangto Selchimdae.

Advertisement for '무담보 무보증 기계당좌입금수표치람급전' (Interest-free, guarantee-free bill discounting) with contact info for Hwangto Selchimdae.

Large advertisement for 'OLZEN OUTLET' featuring a woman in a red coat and a 50% discount offer. Text includes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and '50% ~ 40% Discount'.

Advertisement for '황토셀침대' (Yellow clay bed)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ed and text like 'www.HSELL.co.kr T. 1644-8235' and '더 좋은 황토셀침대, 빛고을 명품!!'.